

최재은의 'DMZ 공중정원' 베니스 간다

25 February, 2016 | 한은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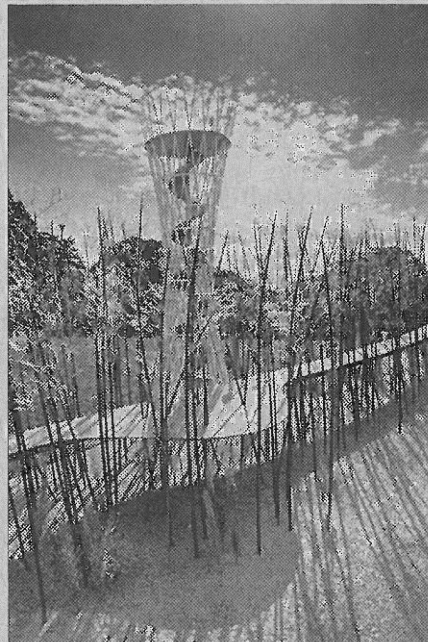
최재은의 'DMZ 공중정원' 베니스 간다

5월 비엔날레 건축전서 초청

설치 미술가 최재은(63)씨의 '비무장지대(DMZ) 공중정원 프로젝트'가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에서 전시된다. 건축전은 올 5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다. 국제갤러리 측은 "최재은 작가가 지난 1995년 베니스 미술 비엔날레 일본관 대표로 참여한 데 이어, 2016년 제15회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에도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중정원 프로젝트는 강원도 철원군 DMZ 내에 있는 평강고원을 배경으로 계획됐다. 매설된 지뢰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3~6m 떠 있는 보행로를 만든다. 총 길이 13km다. 보행로 중간 중간에 13개의 공중정원을 설치하고 높이 20m의 전망대 '바람의 탑'도 두 군데 세운다. 보행로 양끝에는 멸종위기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는 종자은행과 생태계 도서관도 구성하겠다는 안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일본 건축가 시게루 반이 보행로와 타워를 디자인할 예정이다. 최 작가는 "시게루 반이 생태를 보존하고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는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축전 총감독인 칠레 출신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는 지난해 '전선에서 알리다'



'DMZ 공중정원 프로젝트'의 조감도. 전망대는 시게루 반의 디자인이다. [사진 국제갤러리]

(Reporting from the front)를 전시 주제로 제시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계의 도전과 결과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에 한국 작가가 참가하는 것은 4년 만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